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HIV/AIDS 지식 및 태도

안현미* · 유지수** · 박창기*** · 김미옥*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81년 미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후천성 면역결핍증(HIV/AID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는 이 같은 HIV/AIDS 확산을 세계적인 응급상황으로까지 여긴다. 유엔에이즈퇴치계획(UNAIDS: the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의 2004년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HIV에 감염되어 살고 있는 사람은 3천 700백만을 넘어서고 있고, 이는 1991년의 350만 명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10여 년 전 WHO가 예견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1985년에 처음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1996년에는 105명의 감염자가 발견되었고, 2005년에는 680명, 2006년에는 751명의 신규감염자가 발생하여 감염자 발생 수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2007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우리나라 누적 감염인수는 5,155명, 이중 938명이 사망하여 4,217명이 HIV 감염인으로 살아가

고 있다(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07).

초기에 HIV 감염자에 대한 인식은 흔히 동성애자인 남성으로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HIV 감염은 자신과는 동떨어진 특정 집단의 질환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2007년 1월에서 9월까지의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감염경로가 밝혀진 신규감염자 중 214명(64.8%)이 이성간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며, 116명(35.2%)이 동성간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보고되었고, 1996년 8명에서 2006년에는 33명으로 여성 감염자의 수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신규감염자 중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70명(4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07). 이렇듯 HIV/AIDS는 더 이상 동성애를 하는 남성들만의 질환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항바이러스제의 개발로 감염인 몸속의 HIV 바이러스의 수를 줄이고, 바이러스의 수를 계속 관찰하여 관리함으로 증상발현이 지연되고 오랜 시간 건강하게 살 수 있으므로, 더 이상 HIV/AIDS는 죽음의 병이 아니며 약물투약과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따라 오랜 기간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는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다(Fan, Conner, & Villarreal, 2000).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HIV/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간호정책연구소 연구원

*** Senior Health Economist,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hicago, Illinois, USA
(교신저자 E-mail: aprilsea@hanmail.net)

AIDS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 56편에 이르나, 이중 48편이 2000년 이전의 연구들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7편으로 1998년 이후에 이루어진 서술적 조사 연구는 없으며,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함께 조사한 연구는 Lee와 Kim(1997)의 연구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현 시대는 HIV/AIDS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간호대학생은 HIV/AIDS 지식의 향상과 더불어 자신을 보호하고 대상자를 치료, 교육, 옹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하는 의료인으로써의 자질을 함양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HIV/AIDS 관련 교육은 일반대학생과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HIV/AIDS 지식 및 태도정도를 비교해봄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자료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HIV/AIDS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는 것 뿐 만 아니라, HIV/AIDS 감염률을 낮추는 데에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연구목적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HIV/AIDS 지식 및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1)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HIV/AIDS 지식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HIV/AIDS 태도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AIDS 지식 및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정보출처에 따른 HIV/AIDS 지식 및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5)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HIV/AIDS 지식 및 태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HIV/AIDS 지식

지식은 배우거나 연구하여 알고 있는 내용 또는 범위

를 말한다(Lee, 1999). 본 연구에서 HIV/AIDS 지식이라 함은 AIDS에 대한 일반적 지식, AIDS에 대한 전파 경로에 대한 지식과 예방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2) HIV/AIDS 태도

태도는 어떤 사물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 따위가 겉으로 나타난 모습 또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준비 태세로서의 마음가짐을 말한다(Lee, 1999). 본 연구에서 HIV/AIDS 태도는 HIV/AIDS에 대한 심각도, 불안도, 예방 태도, 환자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들의 HIV/AIDS 지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descriptive correlational research)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서울시 소재 일개 간호대학과 일개 일반대학의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대학생 165명과 일반대학생 92명 총 257명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으며, 2007년 5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도구

Diclemente, Aorn와 Temoshok(1986)이 개발한 것과 Hingson, Strunin, Berlin와 Heeren(1990)이 개발한 도구를 참조로 Lee(1994)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일반적 특성, HIV/AIDS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는 총 53문항의 설문지로 구성되어있다. HIV/AIDS 지식 측정도구는 일반적 지식(14문항), 전파경로지식(15문항)과 예방지식(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 36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HIV/AIDS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HIV/AIDS 태도 측정도구는 HIV/AIDS에 대한 심

각도(1문항), 불안도(1문항), 예방태도(4문항)와 AIDS 환자에 대한 태도(6문항)에 관한 문항들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HIV/AIDS 지식 측정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0.87, 태도는 0.82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HIV/AIDS 지식 및 태도 정도는 X²-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AIDS 지식 및 태도 정도는 t-test와 ANOVA로, HIV/AIDS 정보출처에 따른 HIV/AIDS 지식 및 태도 정도는 t-test로 분석하였다. HIV/AIDS 지식 및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서울 시내 일개 간호대학생 165명과 서울시내 일개 일반대학생 9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은 남성이 17명(10.4%), 여성이 146명(89.6%), 일반대학생은 남성이 61명(66.3%), 여성이 31명(33.7%)이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20세 이하가 79명(48.2%), 다음으로 21-25세가 61명(37.2%)이었고, 일반대학생의 경우 20세 이하가 55명(59.8%), 21-25세가 34명(37.0%)이었다. 성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한 간호대학생은 147명(91.3%), 일반대학생은 81명(88.0%)이었고, HIV/AIDS 교육의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간호대학생이 51명(32.3%), 일반대학생이 42명(46.2%)이었다(Table 1).

2.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HIV/AIDS 지식정도

HIV/AIDS 지식은 일반적 지식과 전파경로에 대한 지식, 예방에 대한 지식의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각 문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n=257)

Characteristics		Nursing college No(%)	Non-nursing college No(%)
Sex	Male	17(10.4)	61(66.3)
	Female	146(89.6)	31(33.7)
Age (years)	≤20	79(48.2)	55(59.8)
	21-25	61(37.2)	34(37.0)
	26-30	17(10.4)	3(3.3)
	≥31	7(4.3)	0(0.0)
Sex education experience	Yes	147(91.3)	81(88.0)
	No	14(9.7)	11(12.0)
HIV/AIDS education experience	Yes	51(32.3)	42(46.2)
	No	107(67.7)	49(53.8)

<Table 2> HIV/AIDS-related knowledge of nursing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

No	Statement	Nursing	Non-nursing	X ²	p
		No.(%)	No.(%)		
General Knowledge					
1	HIV/AIDS is a condition that destroys the body's ability to fight disease	154 (96.7)	78 (88.6)	6.71	<.01
2	HIV/AIDS is caused by a virus	145 (93.0)	77 (87.6)	2.04	.15
3	Only homosexual(gay) men get HIV/AIDS	165 (100)	88 (97.8)	3.58	.06
4	The cause of AIDS is unknown	91 (67.4)	58 (81.7)	4.74	.03
5	HIV/AIDS is a kind of cancer	149 (95.5)	77 (93.9)	.29	.59

<Table 2> HIV/AIDS-related knowledge of nursing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

(continued)

No	Statement	Nursing No.(%)	Non-nursing No.(%)	χ^2	p
General Knowledge					
6	There is a treatment for curing HIV/AIDS	129 (89.0)	66 (86.8)	.22	.64
7	AIDS can be cured	142 (97.3)	76 (96.2)	.19	.66
8	You can tell if people are infected by looking at them	141 (91.6)	81 (93.1)	.18	.67
9	Cancer incidence increases in HIV/AIDS patients	76 (58.5)	46 (59.0)	.01	.94
10	You can have HIV/AIDS and not know it	157 (98.1)	88 (97.8)	.04	.85
11	Stress cause HIV/AIDS	128 (90.8)	76 (92.7)	.24	.62
12	HIV/AIDS caused by the same virus that causes other sexual diseases	111 (76.6)	77 (92.8)	9.60	<.01
13	HIV/AIDS is contagious disease	102 (67.6)	55 (36.2)	.46	.50
14	I know the place getting AIDS blood test	111 (78.7)	48 (59.3)	9.59	<.01
Modes of transmission knowledge					
1	Sharing needles with an infected person	159 (98.2)	87 (94.6)	2.47	.12
2	Having sex without using a condom	159 (98.2)	91 (98.9)	.22	.64
3	Heterosexual activity	152 (94.4)	83 (90.2)	1.56	.21
4	Homosexual activity	159 (98.2)	83 (90.2)	8.20	<.01
5	Deep kissing	87 (54.7)	64 (69.6)	5.36	.02
6	Sharing the same food	129 (81.7)	86 (93.5)	6.76	<.01
7	Blood transfusion	158 (98.1)	88 (95.7)	1.34	.25
8	Blood Donation	56 (35.2)	27 (29.4)	.91	.34
9	Handshaking	152 (95.6)	88 (95.7)	.00	.98
10	Public toilet	101 (63.5)	71 (77.2)	5.04	.02
11	Public phone	143 (89.9)	86 (93.5)	.91	.34
12	mosquito or insect	62 (38.8)	40 (43.5)	.54	.46
13	Sneezing	124 (78.0)	81 (88.0)	3.94	.05
14	Studying in the same class with an infected person	154 (96.9)	87 (94.6)	.80	.37
15	A newborns of a positive HIV mothers	161 (99.4)	80 (87.0)	18.66	<.01
Prevention knowledge					
1	Avoiding casual sex can prevent people from getting HIV infection	156 (96.9)	79 (91.9)	3.07	.08
2	Using condom prevent getting HIV infection	152 (95.0)	81 (94.2)	.07	.79
3	Avoiding sex with drug abuser prevent from getting HIV infection	141 (91.6)	60 (76.0)	10.74	<.01
4	Using the birth control pill can prevent people from getting HIV infection	144 (96.6)	84 (97.7)	.20	.65
5	Regular exercise prevent getting HIV infection	114 (83.2)	66 (86.8)	.49	.48
6	HIV/AIDS can be cured if treatment is started at an early stage.	112 (83.6)	62 (86.1)	.23	.63
7	Having sex with more than one partner can raise your chance of getting HIV infection	159 (98.2)	77 (91.7)	5.96	.01
		M(SD)	M(SD)	t	p
Total scores of HIV/AIDS-related knowledge		29.3 (3.08)	29.0 (4.17)	4.79	.03
General Knowledge total score		11.2 (1.54)	11.0 (1.92)	4.83	.03
Modes of transmission knowledge total score		12.1 (2.06)	12.4 (1.88)	-1.30	.20
Prevention knowledge total score		6.1 (.99)	5.6 (1.60)	30.73	<.01

No. = The number of students of correct answers

HIV/AIDS 일반적 지식은 총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평균(표준편차)은 11.2(1.54)점, 일반대학생은 11.0(1.92)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점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5$). 두 대학 학생 모두가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은 '에이즈는 오직 동성연애자에게만 걸린다'로 간호대학생의 경우

165명(100%), 일반대학생의 경우 88명(97.8%)이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가장 낮은 정답률을 기록한 항목은 '에이즈 환자는 암의 확률이 높다'로 76명(58.7%)이었고, 일반대학생의 경우는 '에이즈는 전염이 되는 병이다'라는 항목으로 46명(59.0%)의 정답을 기록하였다. '에이즈는 질병에 대해 싸울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파괴된 상태이다', '에이즈에 대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에이즈는 성병과 똑같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된다', '에이즈 감염여부를 알기 위해서 어디서 검사를 받는지 알고 있다'는 4개의 항목에서 간호대학생의 정답률이 높아 두 학생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HIV/AIDS 전파경로에 대한 지식은 총 15문항으로, 간호대학생의 경우 평균 12.07(2.06)점, 일반대학생의 경우 평균 12.41(1.88)점으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이 각각 159명(98.2%), 91명(98.9%)으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행위'였다. '주사 바늘 같이 사용', '이성간의 성행위', '동성간의 성행위', '수혈' 등에서도 90% 이상의 학생이 정답을 기록하였으며, '모기나 곤충'은 간호대학생이 62명(38.8%), 일반대학생이 40명(43.5%)이 정답을 기록하였다.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4개 항목으로, 그 중 간호대학생이 높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은 '동성간의 성행위', '감염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였으며, 일반대학생이 더 높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은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 '공중화장실'였다($p < .05$).

HIV/AIDS의 예방에 대한 지식은 총 7문항으로 간호대학생은 평균 6.07(.99)점, 일반대학생 5.60(1.60)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1$).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규칙적인 운동은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로 114명(83.2%)이, 일반대학생의 경우는 '주사약물 남용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음으로써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로 60명(76.0%)이 정답을 기록하였다.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주사약물 남용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음으로써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성행위 상대자가 많을수록 에이즈 감염기회가 높다'로 간호대학생이 높았다($p < .05$).

3.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HIV/AIDS 태도정도

HIV/AIDS 태도정도는 간호대학생의 평균(표준편차)이 45.8(4.18)점, 일반대학생 44.0(5.40)점으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HIV/AIDS 태도 항목 중 예방태도를 나타내며 항목은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1$), AIDS 환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4.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AIDS 지식 및 태도 정도

간호대학생의 경우 연령에 따른 지식정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p < .05$), 연령에 따른 태도 점수나 성별, 성교육 유무, 에이즈 교육 유무에 따른 지식점수와 태도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연령과 지식정도에 대해 사후 분석(scheffe)을 실시한 결과 26-30세 그룹의 지식점수가 31.2(2.01)점으로 31세 이상의 26.3(3.3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두 연령 그룹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생의 경우는 나이, 성별, 성교육유무, 에이즈 교육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5.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정보출처에 따른 HIV/AIDS 지식 및 태도 정도

간호대학생(82.2%)과 일반대학생(80.4%) 모두 TV가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은 다음으로 인터넷/학교/신문 순서이며, 일반대학생은 학교/인터넷/신문의 순서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학교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의 학생들의 지식점수의 평균이 29.8(3.10)점으로 학교에서 정보를 얻지 않은 학생들의 평균 28.7(2.96)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 < .05$), 태도점수의 경우도 평균 46.8(3.93)점으로 학교에서 정보를 얻지 않은 학생들의 평균 44.6(4.09)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1$). 일반대학생은 TV에서 정보를 얻는 학생들의 지식점수의

<Table 3> HIV/AIDS-related attitudes of nursing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

No	Statement	Nursing			Non-nursing		
		Disagree No(%)	Medial No(%)	Agree No(%)	Disagree No(%)	Medial No(%)	Agree No(%)
Attitudes toward HIV/AIDS prevention							
1	I will accept HIV test if it is useful to me	9 (5.6)	22 (13.7)	130 (81.0)	15 (17.0)	18 (20.2)	56 (63.1)
2	If I will sex, I will use condom.	3 (1.9)	15 (9.4)	141 (88.7)	6 (7.0)	29 (32.6)	54 (61.0)
3	HIV/AIDS education in high school is necessary.	2 (1.3)	6 (3.8)	152 (95.0)	2 (2.3)	6 (6.9)	79 (91.0)
4	I can protect by myself from getting HIV infection	12 (7.4)	53 (33.0)	96 (59.7)	12 (13.3)	26 (28.9)	52 (57.8)
Attitudes toward HIV infected person							
5	HIV/AIDS patients should be attend school or work	11 (6.8)	52 (32.3)	98 (60.9)	18 (20.5)	211 (23.9)	49 (55.7)
6	It is not right to have a baby if one of the parents is infected*	15 (9.4)	25 (15.7)	119 (74.8)	15 (16.7)	155 (16.7)	60 (66.7)
7	I think that social and economic support for HIV/AIDS patient is necessary	2 (12.5)	33 (20.6)	125 (78.1)	4 (4.4)	17 (18.9)	69 (76.7)
8	It is useless to feel sympathy to HIV infected person*	138 (85.7)	17 (10.6)	6 (3.7)	67 (74.5)	20 (22.2)	3 (3.3)
9	HIV/AIDS patients are considered as the corruptive of public morals*	133 (82.6)	21 (13.0)	7 (4.4)	62 (68.9)	18 (20.0)	10 (11.1)
Other							
10	I think that AIDS is serious disease	7 (4.3)	7 (4.4)	147 (91.3)	6 (6.7)	1 (1.1)	82 (92.1)
11	I never get HIV infection*	33 (20.5)	44 (27.3)	84 (52.2)	12 (13.3)	32 (35.6)	46 (51.1)
12	AIDS is not serious disease in Korea yet*	107 (66.9)	15 (16.9)	16 (10.0)	59 (66.3)	15 (16.9)	15 (16.9)
		M(SD)		M(SD)		t	p
Total scores of HIV/AIDS-related attitude		45.77(4.15)		44.01(5.40)		5.37	.02
Attitudes toward HIV/AIDS prevention total score		16.80(2.02)		15.55(2.77)		3.71	<.01
Attitudes toward HIV infected person total score		15.60(1.91)		15.20(2.03)		1.50	.13

<Table 4> HIV/AIDS-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Knowledge						Attitudes					
		Nursing(161)			Non-nursing(96)			Nursing(161)			Non-nursing(96)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Sex	Male	29.6(3.08)			29.1(4.67)			47.1(4.82)			43.3(5.95)		
	Female	29.3(3.06)	.39	.70	29.0(3.03)	.07	.94	45.6(4.07)	1.15	.27	45.3(4.09)	-1.78	.08
Age (years)	≤ 20	29.2(3.21)			29.0(3.62)			45.3(4.08)			44.2(4.41)		
	21-25	29.2(2.90)			29.0(5.02)			46.0(4.59)			43.5(6.89)		
	26-30	31.2(2.01)	4.52	.01	31.0(3.46)	.33	.72	46.9(3.22)	.84	.48	45.7(5.77)	.31	.73
	≥ 31	26.3(3.30)						47.0(3.85)					
Sexual education experience	Yes	29.3(3.03)			29.0(4.41)			45.7(4.23)			43.9(5.46)		
	No	29.2(3.81)	.09	.93	29.7(4.50)	.54	.60	46.1(3.66)	.39	.70	44.7(5.20)	.40	.70
HIV/AIDS education experience	Yes	29.0(3.34)			29.6(3.97)			46.3(4.45)			43.9(6.19)		
	No	29.4(3.01)	.79	.43	28.5(4.30)	-1.28	.20	45.6(4.04)	-.97	.43	44.1(4.61)	.14	.89

(Table 5) HIV/AIDS-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by source of information

		Knowledge						Attitudes					
		Nursing(161)			Non-nursing(96)			Nursing(161)			Non-nursing(96)		
		M(SD)	t	p	M(SD)	t	p	M(SD)	t	p	M(SD)	t	p
TV	Yes	29.2(3.01)	.75	.39	29.5(3.75)	5.04	.03	45.6(4.30)	1.15	.29	44.2(5.18)	.32	.57
	No	29.8(3.37)			27.1(5.23)			46.5(3.36)			43.2(6.67)		
Internet	Yes	29.2(3.30)	.25	.62	29.6(4.05)	1.60	.21	45.7(4.38)	.05	.83	44.8(4.63)	1.68	.20
	No	29.5(2.60)			28.5(4.26)			45.9(3.66)			43.3(5.99)		
School	Yes	29.8(3.10)	5.31	.02	29.4(3.60)	.30	.59	46.8(3.93)	12.17	<.01	44.9(4.76)	2.53	.12
	No	28.7(2.96)			28.8(4.77)			44.6(4.09)			43.0(5.97)		
Newspaper	Yes	29.2(3.08)	.14	.71	29.7(3.83)	2.09	.15	46.3(4.74)	2.22	.14	44.1(5.88)	.05	.82
	No	29.4(3.09)			28.4(4.46)			45.3(3.52)			43.8(4.93)		

평균이 29.5(3.75)점으로 TV에서 정보를 얻지 않는 학생들의 평균점수 27.1(5.2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5$). TV에서 정보를 얻는 학생들의 태도점수나, 학교, 인터넷, 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는 학생들의 평균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6.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HIV/AIDS 지식 및 태도와의 관계

간호대학생($r = .23, p < .01$)과 일반대학생($r = .30, p < .01$) 모두 HIV/AIDS 지식 및 태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Table 6).

HIV/AIDS 지식을 일반적 지식, 전파경로지식, 예방지식으로, HIV/AIDS 태도를 예방태도와 AIDS 환자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경우 일반지식과 예방지식($r = .28, p < .01$), 그리고 예방태도와 AIDS환자에 대한 태도($r = .25, p < .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대학생의 경우는 일반적 지식과 전파경로지식($r = .35, p < .01$), 일반적 지식과 예방지식($r = .47, p < .01$), 일반적 지식과 예방태도($r = .26, p < .05$), 전파경로지식과 예방지식($r = .36, p < .01$), 예방지식과 예방태도($r = .22, p < .05$)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IV. 논 의

본 연구에서 HIV/AIDS 지식정도는 간호대학생이 평균 29.3(3.08)점, 일반대학생이 29.0(4.17)점으로,

HIV/AIDS 태도정도는 간호대학생이 평균 45.8(4.15)점이고 일반대학생이 평균 43.0(5.40)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전의 HIV/AIDS 지식과 태도 정도에 관한 연구들은 각기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으므로 (Kim, 1990; Shin & Hong, 1996a, 1996b; Han & Lee, 1998; Lee & Kim, 1997), 비록 각각의 도구들이 HIV/AIDS에 관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고 있는 설문지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HIV/AIDS 지식 및 태도에 대한 문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HIV/AIDS 일반적 지식을 나타내는 항목 중 '에이즈는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다'는 간호대학생이 97.3%, 일반대학생의 경우 96.2%의 정답률을 보인 반면, Han과 Lee(1998)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89.4%의 정답률을, Shin과 Hong(1996)의 연구에서 일반대학생이 64.7%의 정답률을 보였던 것에 비해 다소 향상된 점수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AIDS는 전염병이다'는 항목은 Kim(199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39.1%의 정답률을 보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 67.6%로 향상된 점수를 보이긴 하였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결과로써 이는 HIV/AIDS에 대한 일반적 지식의 향상정도가 여전히 편차적인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되어 진다.

HIV/AIDS 지식 문항 중 전파경로 지식 문항에서는 악수나 공중전화의 사용,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같은 교실 안에서의 활동 등으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HIV/AIDS-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in detail.

	Knowledge						Attitudes			
	General knowledge		Modes of transmission knowledge		Prevention knowledge		Attitudes toward HIV/AIDS prevention		Attitudes toward HIV/AIDS patient	
	Nursing	Non-nursing	Nursing	Non-nursing	Nursing	Non-nursing	Nursing	Non-nursing	Nursing	Non-nursing
Knowledge										
Modes of transmission knowledge	r	.15		.35						
	p	.06		<.01						
Prevention knowledge	r	.28		.47		.03	.36			
	p	<.01		<.01		.72	<.01			
Attitudes										
Attitudes toward HIV/AIDS prevention	r	.10	.26	.00	.02	.15	.22			
	p	.22	.02	.99	.85	.06	.02			
Attitudes toward HIV/AIDS patient	r	-.08	.01	-.12	.09	.03	-.37	.25	.28	
	p	.34	.94	.13	.41	.69	.73	<.01	.01	
Total	r							.23	.30	
	p							<.01	.01	

은 90%이상의 정답률을 보여 HIV감염인과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채기를 통해서 전파되지 않는다는 지식의 정답률은 간호대학이 78.0%, 일반대학이 88.0%를 나타냈는데, 이는 과거의 연구(Lee & Han, 1996; Shin & Hong, 1996; Han & Lee, 1998)에 비해서 증가된 것이다. 반면, 몇몇 문항은 과거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60-70%대의 정답률을 기록하였고(Shin & Hong, 1996; Lee & Han, 1996; Lee & Han, 1997; Han & Lee, 1998), 모기로 인해 감염된다고 답한 경우도 간호대학생 38.8%, 일반대학생이 43.3%로 Han과 Lee(1998)의 연구와 Shin과 Hong(1996)의 연구에서와 같은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수혈의 경우는 95% 이상의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반해 헌혈이 30%내외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Shin과 Hong(1996)이 언급한 것처럼 수혈과 헌혈을 혼동한 것인지, 혹은 정말 헌혈을 감염경로로 여기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는 공중화장실 사용과 채채기 등과 같이 HIV/AIDS 환자들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파경로에 대해 낮은 지식을 보이는 항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므로, 학교와 교육단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교육과 홍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HIV/AIDS 태도정도를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하다'라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의 간호대학생이 82.6%로 Han과 Lee(1998)의 연구에서의 21.1%의 결과보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을 동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항목 또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간호대학생은 66.9%로 Han과 Lee(1998)의 55.9%에 비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콘돔사용의사는 간호대학생의 96.0%가 그렇다고 답하여 Han과 Lee(1998)의 연구에서 98.1%였던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이전에 비해 간호대학생들의 AIDS 환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항목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기는 하나, 예방태도점수에 비해 AIDS 환자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IV/AIDS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간호대학생 31.3%, 일반대학생 46.2%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Han & Lee, 1998; Lee & Kim, 1997; Shin & Hong, 1996). 본 연구에서 HIV/AIDS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경우 HIV/AIDS 지식 및 태도에 어떤 유의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는데, Lee와 Kim(1997)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이다. 반면, Kim(1990)의 연구에서는 AIDS 지식을 얻은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지식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Han과 Lee(1998)의 연구에서는 AIDS 교육유무에 따라서 전파경로지식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렇듯 상반되는 결과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HIV/AIDS 관련 교육이 대학생들의 HIV/AIDS 지식 및 태도 정도를 높이는 데에 반드시 효과적이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교육시행 시에 지식과 태도 정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HIV/AIDS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경우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 TV에서였는데(82.21% vs 80.43%), 과거 Kim(1990), Ragon, Kittleson과 Pierre(1995), Shin과 Hong(1996) 그리고 Ungan와 Yamon(2003)의 연구에서도 TV가 주요 정보원이었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TV 이외의 주요 정보원으로는 인터넷, 학교, 신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1990), Shin과 Hong(1996) 그리고 Han과 Lee(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후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새로운 정보원이 되고 있으며, 십여 년 동안 인터넷 외에는 다른 정보원의 변화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Lee와 Kim(1997)의 연구에서도 학교를 통한 교육경험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경우에 학교에서 정보를 얻은 학생들의 지식과 태도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대학생은 TV를 통해 정보를 얻은 학생들의 지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AIDS 교육여부에 따른 지식과 태도 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교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의 간호대학생의 지식과

태도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볼 때, 현재 간호대학에서 교과과정을 통한 HIV/AIDS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이 입증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는 Kim(1990)과 Ungan과 Yanmom (2003)의 연구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감염자가 증가되고 있어 HIV/AIDS에 대한 인식의 향상이 필요한 현재는 좀 더 정확한 지식의 습득과 태도향상을 위해서 HIV/AIDS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과정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질 때에도 좀 더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HIV/AIDS 지식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Kim(1990) 그리고 Shin과 Hong(199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HIV/AIDS 지식 및 태도의 세부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에서 예방태도가 AIDS환자에 대한 태도와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예방태도를 향상시킴으로써 AIDS환자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HIV/AIDS 지식 및 태도를 비교해 본 결과 HIV/AIDS 지식항목 중 전파경로에 대한 지식 세부항목에서 '동성간의 성행위', '감염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 항목과 같은 의학적 지식을 포함하는 항목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인 반면,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 '공중화장실' 등 AIDS환자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항목에서는 간호대학생에 비해 일반대학생이 더 높은 정답률을 기록하였다. 간호대학생에게 HIV/AIDS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간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일차건강관리자로서 일반대상자에게 예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동시에 감염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옹호자의 역할을 배우기 위해서 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AIDS 환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항목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HIV/AIDS 교육이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켜 질 높은 간호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는 결과라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는 서울 시내의 일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나, 앞으로의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HIV/AIDS 지식 및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일개 간호대학과 일반대학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대학생 164명과 일반대학생 92명 총 256명을 편의 추출하여 2007년 5월과 6월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Diclemente 등(1986)이 개발한 연구도구와 Hingson 등(1990)이 개발한 연구도구를 참조로 Lee(1994)가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5문항, HIV/AIDS 관련 지식 36문항, HIV/AIDS에 대한 태도 12문항으로 총 5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집된 자료는 SAS 9.1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X^2 -tes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HIV/AIDS 지식정도는 간호대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HIV/AIDS 일반적 지식정도는 간호대학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2) HIV/AIDS 전파경로에 대한 지식정도는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3) HIV/AIDS 예방 지식정도는 간호대학생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HIV/AIDS 태도는 간호대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HIV/AIDS 예방에 대한 태도 항목은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2) AIDS 환자에 대한 태도 항목은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AIDS 지식 및 태도정도는 간호대학생의 연령에 따른 HIV/AIDS 지식정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4.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정보출처에 따른 HIV/AIDS 지식 및 태도정도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에 지식과 태도정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일반대학생의 경우에는 TV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에서 HIV/AIDS 지식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 HIV/AIDS 지식 및 태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HIV/AIDS 관련 교육이 궁극적으로 HIV/AIDS에 대한 태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2.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HIV/AIDS 관련 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간호대학의 경우에는 HIV/AIDS 지식 및 태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이 일반대학보다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감염인과의 대화기술과 상담기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면서도 폭넓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Diclemte, R. J., Zorn, J., & Temoshok, L. (1986). Adolescents and AIDS: A survey of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about AIDS in San Francisco. *Am J of Public Health, 72*(11), 1443-1445.
- Han, Y. R. & Lee, K. O. (1998).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of college nursing students to patient with HIV/ AIDS. *J Korean Acad Pub Health Nurs, 12*(2), 201-220.
- Handler, A., Lampman, C., Levy, S., Weeks, K., Rashid, J., & Flay, B. (1994). Attitude toward people with AIDS and implications for school-based youth and education. *AIDS Educ Prev, 6*(2), 175-183.
- Hingson, R. W., Strunin, L., Berlin, B. M., & Heeren, T. (1990). Beliefs about AIDS, Use of alcohol and drugs, and unprotected sex among massachusetts adolescents. *Am J of Public Health, 80*(3), 295-299.
- Hung, F., Conner, R. F., & Villarreal, L. P. (2000). *The biology of AIDS, 4th edi.* Massachusetts: Jones and Bartlett publisher.
- Jeon, C. Y., Lim, Y. S., Kim, C. J., Kim, Y. S., & Park J. W. (1988). A survey on nurse's attitudes and knowledge of AIDS. *J Korean Acad Nurs, 27*(4), 75-86.
- Kim, S. N., Lee M. S., & Yim, H. B. (2003). A study of AIDS 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according to sex of college students.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12*(1), 31-45.
- Kim, Y. H. (1990). A study on nursing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IDS. *J Korean Acad Adult Nurs, 2*, 124-135.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07, Oct 19). *HIV/AIDS statistics report.* Retrieved November 15, 2007, from the Korea AIDS Information Center web site: http://www.aidsinfo.or.kr/Html/Infor_02.html
- Lee, A. K., & Kim, Y. H. (1997). A survey on AIDS related knowledge of a college students in Kyung-gi Area. *Kyungsung Chong Ron, 1*, 399-414.
- Lee, G. M. (1999). *Dong-a merit Korean dictionary.* Seoul: Dosan corporation.
- Lee, J. E. (1994). *A study on the AIDS knowledge, attitude and risk behaviors among highs school students in Seoul.*

-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J. K. (2002). The effect of an AIDS education program of nursing students on knowledge, attitudes, fear of contagion and nursing intention about AIDS. *J Korean Acad Adult Nurs*, 14(1), 5-14.
- Lee, K. O., & Han, Y. R. (1996). Knowledge, attitude and perceived vulnerability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and nurses to patient with HIV/AIDS. *J Korean Acad Nurs*, 8(2), 27-52.
- Ragon, B. M., Kittleson, M. J., & Pierre, R. W. (1995). The effect of a single affective HIV/AIDS educational program on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AIDS Educ Prev*, 7(3), 221-231.
- Shin, Y. H., & Hong, Y. H. (1996).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IDS in Daegu and Kyungpook areas. *J Korean Acad Nurs*, 35(1), 94-103.
- Shin, Y. H., & Hong, Y. H. (1996).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IDS in Pusan and Ulsan areas. *J Korean Acad Nurs*, 26(1), 33-42.
- The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2004). *Report on the global AIDS epidemic*. Geneva, Switzerland: UNAIDS.
- Ungan, M., & Yamon, H. (2003). AIDS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s of technical university students in Turkey. *Patient Educ Couns*, 51, 163-167.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HIV/AIDS fifty-seventh world health assembly provisional agenda item 12.1*. Geneva, Switzerland: WHO.

ABSTRACT

HIV/AIDS-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Ahn, Hyun Mi(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Yoo, Ji Soo(Professor, The Nurs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ark, Chang Gi(Senior Health Economist,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hicago, Illinois, USA)

Kim, Mi Ok(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urpose: To describe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 toward HIV/AIDS for use in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HIV/AIDS education program.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5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92 non-nursing college student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hen analyzed by X^2 -test,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Compared to previous research, the score of some items of the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HIV/AIDS improved. However, the score of several items of the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HIV/AIDS needs further improvement. In both groups of college student, total attitudes toward HIV/AIDS were correlated with total knowledge of HIV/AIDS. **Conclusion:** Although some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HIV/AIDS improved comparing to previous research, a more specifically structured education program is needed. The development of a the program to increase the attitudes toward HIV/AIDS patients is critical.

Key words : HIV/AIDS, Knowledge, Attitude